

# 老處女歌 (一)



### [해제]

본 가사는 이미 주해한 <거사가>와 함께 조선문학전집 제2권 가사집(歌詞集) (상)에 실린 작품이다. 그 사설의 전개는 3.4조가 34구, 4.4조가 91구, 그 밖에 5.3조가 1구로서, 총 126구 구성이요, 2구 1행을 이루는 가사형식의 기본형에 준하여 이르면 총 63행의 노래로서 정연한 가사 율조를 갖춘 4.4조 위주의 평민가사라 할 수 있다. 이는 작자와 제작 연대가 미상으로 활자체로 전하는 율문체이다. 그 사설의 표기 형태와 작품에 쓰인 조사(措辭) 등으로 미루어 최근세의 가사로 추정된다. 내용은 나이 40이 되도록 시집가지 못한 여인이 자신의 한스러운 처지를 애절하게 한탄하는 노처녀의 자탄가이다. 먼저, 가슴 속에 맺힌 한의 호소로서 “인간세상 사람들아 이내 말씀 들어 보소”라 하여 화법적(話法的) 서술로부터 시작한다. 이어서, 부친은 병조판서(兵曹判書)요, 할아버지는 호조판서(戶曹判書)로서 사회적 지체가 높은 집안의 한 딸이 시집 보내주지 못하는 부모에 대한 원망을 거침없이 펴는 장면에서 이르면 독자마저 민망스럽게 한다. 답답한 우리 부모 가난한 종양반(兩班)이 양반인 체 도(道)를 차려 처사(處事)가 불민하고 괴망(怪妄)을 일삼으니 다만 한 딸 늙어간다. 적막한 빈방 안에 적료(寂寥)하게 홀로 앉아 전전불매 잠 못 이뤄 혼자 하는 사설 들어보오. 노망한 우리 부모 나를 길러 무엇 하리. 죽도록 날 길러서 잡아 쓸 건가 구워 쓸 건가. 이같은 내용을 대하고 보면 원망의 푸념이 지나친 감이 없지 않으나, 사랑이 그리워 밤이면 전전반측 잠 못 이루는 노처녀의 심정이 그만큼 애절함을 가히 짐작케 한다. 그리하여 남자라면 상처(喪妻)하였든 기처(棄妻)하였든 간에 가리지 않는다는 노처녀의 사랑타령은 독자의 동정을 자아내게 하는 간곡한 심정의 토로로 이해된다. 결국 가사의 결사에서 “아마도 모진 목숨 죽지 못해 원수로다.”라 함은 가사에 담긴 주제적 표현의 요약이 되는 셈이다.

### [원문]

동계 동덩덩지로 놀러를 가세

二八 靑 春 歌

이팔은 청춘의  
소녀몸 되어서  
문명의 학문을  
다까를 봄시다  
세월이 가기는  
흐르는 물같고  
사람이 늙기는  
바람결 같고나  
진나라 시황도  
마글수 업섯고  
한나라 무제도  
어쩔수 잇섯나  
천금을 주어도  
세월은 못사네  
못사는 세월을  
허송을 할가나  
노지를 마라라

## 老處女歌 (一)

노지를 마라라  
절머서 청춘에  
노지를 마라요  
우리가 절머서  
노지를 마라야  
늘거서 행복이  
자연히 이르네  
청춘에 할 일이  
무엇이 업서서  
주사 청루로  
종사를 하느냐  
바람이 말가서  
정신이 쾌커든  
조흔글 보면은  
지식이 늘고요  
월색이 명랑해  
회포가 잇거든  
옛일을 공부코  
새일을 배호소  
근근코 자자히  
공부를 하면은  
덕운신 하고요  
부윤옥 하리라  
우리가 살면은  
몇백년 사느냐  
사라서 생전에  
사업을 이루세  
정신을 개치고  
마음을 다까서  
이팔의 청춘을  
허송치 마라라

### 老處女歌

인간세상 사람들아 이내말슴 드러보소  
인간만물 생긴후에 금수초목 짝이잇다  
인간에 생긴남자 부귀자손 갖것마는  
이내팔짜 험구즐손 날가튼이 또잇는가  
백년을 다사려야 삼만육천 날이로다

## 老處女歌 (一)

혼자살면 천년살면 정녀되면 만년살가  
답답한 우리부모 가난한 좀양반이  
양반인체 도를차려 처사가 불민하여  
괴망을 일사므니 다만한딸 늘거간다  
적막한 빈방안에 적료하게 홀로안자  
전전불매 잠못이뤄 혼자사설 드러보소  
노망한 우리부모 날길러 무엇하리  
죽도록 날길러서 자바쓸가 구어쓸가  
인황씨적 생긴남녀 복희씨적 지은가취  
인간배필 흔취함은 예로부터 잇것마는  
어떤처녀 팔짜조하 이십전에 시집간다  
남녀자손 시집장가 떼뻗한 일이것만  
이내팔짜 기힘하야 사십까지 차녀로다  
이런줄을 아랏스면 처음아니 나올것을  
월명사창 긴긴밤에 침불안석 잠못드러  
적막한 빈방안에 오락가락 다니면서  
장래사 생각하니 더욱답답 민망하다  
부친하나 반편이오 모친하나 속맥불변  
날이새면 내일이오 세가쇠면 내년이라  
혼인사설 전폐하고 가난사설 뿐이로다  
어대서 손님오면 행어나 중 매신가  
아희불러 힐문한즉 풍헌약정 환자재촉  
어대서 편지왔네 행혀나 청혼선가  
아희다려 무러보니 외삼촌의 부음이라  
애닦고 서른지고 이내간장을 어이할고  
앞집에 아오아기 발서자손 보단말가  
동편집 용골녀는 금명간에 시집가네  
그동안에 무정세월 시집가서 풀렛마는  
친고없고 혈속업서 위로하리 전혀업고  
우리부모 무정하여 내생각 전혀없다  
부귀빈천 생각말고 인물풍채 마땅커든  
처녀사십 나이적소 혼인거동 차려주오  
김동이도 상처하고 이동이도 기처로다  
종매할미 전혀없네 날차즈리 어이없노  
감정암소 살저잇고 봉사전답 갖것마는  
사족가문 가리면서 이대도록 늙히노니  
연지분도 잇것마는 성적단장 전폐하고  
감정치마 흰저구리 화경거울 앞에노코

## 老處女歌 (一)

원산가튼 푸른눈섭 세류가튼 가는허리  
아름답다 나의자태 묘하도다 나의거동  
흐르는 이세월에 앗가울손 나의거동  
거울다려 하는말이 어화답답 내팔짜여  
갈데없다 나도나도 쓸데없다 너도너도  
우리부친 병조판서 한아버지 호조판서  
우리문벌 이러하니 풍속쫓기 어려워라  
안연듯 춘절되니 초목군생 다즐기네  
두견화 만발하고 잔디뉘 속뉘난다  
사근바자 쟁쟁하고 종달새 도두뜬다  
춘풍야월 세우시에 독숙공방 어이할고  
원수의 아희들아 그런말 하지마라  
앞집에는 신랑오고 뒷집에는 신부가네  
내귀에 뚝는바는 늦길일도 하고만타  
녹양방초 저른날에 해는어이 수이가노  
조로가튼 우리인생 표연히 늘거가니  
머리채는 옆에끼고 다만한숨 뿐이로다  
긴밤에 짝이없고 긴날에 벗이없다  
안잣다가 누엇다가 다시금 생각하니  
아마도 모진목숨 죽지못해 원수로다

## 老處女歌 (二)

어와 내몸이여  
설고도 분한지고  
이서름을 어이하리  
인간만사 서른중에  
이내서름 가뜰손가  
서름말 하자하니  
붓그럽기 칙량없고  
분한말 하자하니  
가슴답답 그뉘알리  
남모르는 이런서름  
천지간에 또잇는가  
밥이업서 서러할가  
웃이업서 서러할가  
이서름 어이폴리3

[현대역]

老處女歌

인간 세상(人間世上) 사람들아 이내 말씀 들어보소  
인간 만물(人間萬物) 생긴 후에 금수(禽獸)1 초목(草木) 짝이 있다  
인간에 생긴 남자 부귀 자손(富貴子孫) 갖추어 것만은  
이내 팔자(八字)2 험곳으니 날 같은 이 또 있는가  
백년(百年)을 다 살아야 삼만 육천 일(三萬六千日)이로다  
혼자 살면 천년 살며 정녀(貞女)3 되면 만년 살까  
답답한 우리 부모 가난한 증양반(兩班)이4  
양반인 체 도(道)를 차려 처사(處事)가5 불민(不敏)하고  
괴망(怪妄)을6 일삼으니 다만 한 딸 늙어간다  
적막(寂寞)한 빈방 안에 적료(寂寥)하게 홀로 앉아  
전전불매(輾轉不寐)7 잠 못 이뤄 혼자 하는 사설(辭說) 들어보오  
노망(老妄)한 우리 부모 나를 길러 무엇 하리  
죽도록 날 길러서 잡아 쓸 건가 구워 쓸 건가  
인황씨(人皇氏)8 적 생긴 남녀 복희씨(伏羲氏)9 적 지은 가취(嫁娶)10  
인간 배필(配匹) 혼취(婚娶)함은11 예로부터 있건마는  
어떤 처녀 팔자 좋아 이십 전에 시집간다  
남녀 자손(男女子孫) 시집 장가 떳떳한 일이건만  
이내 팔자 기험(崎險)하야12 마흔 살까지 처녀(處女)로다13  
이런 줄을 알았으면 처음 아니 나올 것을  
월명 사창(月明紗窓)14 긴긴 밤에 침불안석(寢不安席)15 잠 못 들어  
월명 사창(月明紗窓)14 긴긴 밤에 침불안석(寢不安席)15 잠 못 들어 적막(寂寞)한 빈방 안에 오락가락  
다니면서  
장래사(將來事)16 생각하니 더욱 답답하고 민망(憫惘)하다  
부친은 오직 반편(半偏)이오17 모친은 오직 속맥불변(菽麥不辨)18  
날이 새면 내일이오 세(歲)를 쇠면 내년(來年)이라  
혼인에 대한 사설 전폐(全廢)하고19 가난에 대한 사설뿐이구나  
어디서 손님 오면 행여나 중매(中媒)이신가20  
아히 불러 힐문(詰問)한21 즉 풍헌 약정(風憲約正)이22 환자(還子)23 재촉이요  
어디서 편지 왔네 행여나 청혼서(請婚書)인가24  
아히에게 물어보니 외삼촌(外三寸)의 부음(訃音)이라25  
애달프고 서럽구나 이내 간장(肝腸) 어이 할꼬  
앞집에 아우 아기 벌서 자손(子孫)을 본다는 말인가  
동편(東便) 이웃집 용골 여(龍骨女)도26 금명간(今明間) 시집간다네  
그 동안의 무정 세월(無情歲月) 시집갔으면 풀렸으려만  
친구(親舊) 없고 혈속(血屬)도27 없어 위로할 이 전혀 없고

## 老處女歌 (一)

우리 부모 무정하여 나의 생각 전혀 없네  
부귀 빈천(富貴貧賤) 생각 말고 인물 풍채(人物風采) 마땅하거든  
처녀 사십 나이가 어찌 적으오 혼인 거동(婚姻舉動) 차려주오  
김(金)등이는 상처(喪妻)하고28 이(李)등이도 기처(棄妻)해29 홀로인데  
중매(仲媒)할머니30 전혀 없네 날 찾을 이 어찌 없는고  
검정 암소 살져 있고 봉사 전답(奉祀田畝)31 갖추어 있건마는  
사족 가문(士族家門)을32 가리면서 이대도록33 늙히나니  
연지분도 있건마는 성적 단장(成赤丹粧)34 전폐(全廢)하고  
검정 치마 흰 저고리 화경(火鏡)35 거울 앞에 놓고  
원산(遠山) 같은 푸른 눈썹 세류(細柳) 같은 가는 허리  
아름답다 나의 자태 묘(妙)하도다 나의 거동(舉動)  
흐르는 이 세월에 아까울 손 나의 거동  
거울 다려 하는 말이 어화 답답하다 내 팔자여  
갈 데 없다 나도 나도 쓸 데 없다 너도 너도  
우리 부친 병조 판서(兵曹判書)요36 할아버지는 호조 판서(戶曹判書)라37  
우리 문벌(門閥)38 이러하니 풍속(風俗) 쫓아가기 어려워라  
안연(晏然)하듯39 춘절(春節)되니 초목 군생(草木群生)이40 다 즐기네  
두견화(杜鵑花) 만발하고 잔디 앞엔 속잎 난다  
삭은 바자41 쟁쟁(琤琤)하고42 종달새도 높게 도두 뜬다  
춘풍 야월(春風夜月)43 세우(細雨)44 시에 독숙공방(獨宿空房)45 어이 할꼬  
원수의 아희들아 그런 말을 하지마라  
앞집에는 신랑오고 뒷집에는 신부가 가네  
내 귀에 듣는 바는 느낄 일도 많고 많다.  
녹양방초(綠楊芳草)46 저문 날에 해는 어이 쉽게 가노  
조로(朝露)47 같은 우리 인생 표연(飄然)히48 늙어가니  
머리채는49 옆에 끼고 다만 한숨뿐이로다  
긴긴 밤에 짝이 없고 긴긴 날에 벗이 없다  
앉았다가 누웠다가 다시금 생각하니  
아마도 모진 목숨 죽지 못해 원수로다

[각주]

- 1) 금수(禽獸) : 날짐승과 길짐승. 곧 모든 짐승.
- 2) 팔자(八字) : 녹명(祿命). 사람의 생년월일과 시를 각기 천간(天干)과 지지(地支) 두 글자로 나타낸 것이 모두 여덟 글자인 데서, 어떤 사람이 타고난 한평생의 운세.
- 3) 정녀(貞女) : 남자와 한 번도 통정하지 않은 여자.
- 4) 좀양반(좀兩班) : 도량이 좁고 성격이 좀스러운 양반.
- 5) 처사(處事) : 일처리. 일을 처리하는 것.
- 6) 괴망(怪妄) : 말과 행동이 괴상하고 망측한 것.
- 7) 전전불매(輾轉不寐) : 전전 반측(輾轉反側).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
- 8) 인황씨(人皇氏) : 옛날 중국 전설에 나오는 왕.
- 9) 복희씨(伏羲氏) : 삼황(三皇)의 첫머리에 꼽는 중국 전설상의 제왕 또는 신.
- 10) 가취(嫁娶) : 취가(娶嫁).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
- 11) 혼취(婚娶) : 혼인(婚姻). 이성의 상대와 예를 갖추어 부부가 되는 것.
- 12) 기험(崎險) : 기구(崎嶇). 삶이 순조롭지 못하고 온갖 어려움을 겪는 상태에 있는 것.
- 13) 처녀(處女) : 아직 시집가지 않은 성숙한 여자. 이에 대한 가사 원문의 표기는 ‘차녀’로 되어 있음. (참고 : 가사의 원문 중 속음(俗音)이나 변음(變音)의 표기, 또는 오자(誤字) 등은 가사의 현대역 이해의 편의를 위해 가급적 그 표기의 예를 이처럼 제시해 둔다. 이하 다른 각주에 드는 낱말의 경우도 이와 같다.)
- 14) 월명사창(月明紗窓) : 고운 달빛이 들어 비추는 사창. 사창(紗窓) : 깃으로 바른 창.
- 15) 침불안석(寢不安席) : 걱정이 많아서 편안히 자지 못함.
- 16) 장래사(將來事) : 장차 닥쳐올 일이나 해야 할 일.
- 17) 반편(半偏) : 반편이의 준말. 반병신. 지능이 보통 사람보다 아주 낮은 사람.
- 18) 속맥불변(菽麥不辨) : 콩인지 보리인지 분간하지 못할 만큼 어리석음.
- 19) 전폐(全廢) : 아주 그만두거나 없애는 것.
- 20) 중매(中媒) : 중간에서 혼인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
- 21) 힐문(詰問) : 트집을 잡아 따져 묻는 것.
- 22) 풍헌약정(風憲約正) : 조선시대 향소직(鄉所職)의 하나. 면(面).이(里)의 일을 맡아 보았음. 약정(約正) : 조선시대 향약(鄉約) 조직의 임원.
- 23) 환자(還子) : 환곡(還穀). 국가가 비축했던 곡식을 춘궁기에 백성에게 꾸어 주었다가 추수 후 돌려 받던 곡식 및 그 제도. 후기에는 많은 이자를 붙여 값게 함으로써 수취(收取) 제도로 변질되었음.
- 24) 청혼서(請婚書) : 구혼서(求婚書). 결혼하기를 청하는 글.
- 25) 부음(訃音) : 부고訃告. 사람이 죽었다는 기별.
- 26) 용골 여(龍骨女) : 용골때질을 잘하는 여자. 용골때질 : 병자호란을 일으킨 중국 청나라의 장군 용골대(龍骨大)처럼 못된 일을 한다고 해서 생긴 말로, 심술을 부려 남의 부아를 돈우는 일.
- 27) 혈속(血屬) : 혈통을 이어가는 살붙이.
- 28) 김(金)동이 : 김씨 성을 가진 사람. 이에 대한 가사 원문 표기는 ‘김동이’로 되어 있음. 상처(喪妻) : 상우(喪偶). 아내가 죽어서 혼자되는 것.
- 29) 이(李)동이 : 이씨 성을 가진 사람. 이에 대한 가사 원문 표기는 ‘이동이’로 되어 있음. 기처(棄妻) :



조선시대에 인정된 이혼 제도. 칠거지악(七去之惡)의 조건하에서 허용된 법제상 이혼임.

30) 중매(仲媒)할머니 : 중간에서 혼인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할머니. 이에 대한 가사 원문의 표기는 ‘중매할미’로 되어 있음.

31) 봉사(奉祀) : 봉제사(奉祭祀).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 모시는 것.

32) 사족(士族) : ① 문벌이 좋은 집안. 또는 그 자손. ② 선비나 무인 집안. 또는, 그 자손.

33) 이대도록 : 이다지. 이러한 정도로. 또는, 이렇게까지.

34) 성적(成赤) : 혼인날 신부가 얼굴에 분을 바르고 연지를 찍는 일. 단장(丹粧) : 얼굴.머리.옷차림 따위를 곱게 꾸미는 것.

35) 화경(火鏡) : 햇빛에 비추어서 불을 일으키는 거울. ‘볼록렌즈’를 이르는 말.

36) 병조판서(兵曹判書) : 병판(兵判). 조선시대 육조의 하나인 병조의 정2품 으뜸 벼슬.

37) 호조판서(戶曹判書) : 호판(戶判). 조선시대 육조의 하나인 호조의 정2품 으뜸 벼슬.

38) 문벌(門閥) : 가벌(家閥).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사회적 지체.

39) 안연(晏然) : 안여(晏如). 마음이 편안하고 태평스러움.

40) 초목군생(草木群生) : 풀과 나무 등 모든 생물.

41) 바자 : 파자(笆子). 울타리를 만드는 데에 쓰이는, 대.갈대.수수깡.싸리 따위로 받처럼 엮은 물건.

42) 쟁쟁(琤琤) : ①전에 들은 소리가 잊히지 않고 귀에 울리는 듯하다. ②옥이나 좋은 금속의 울리는 소리가 매우 맑다.

43) 춘풍야월(春風夜月) : 봄바람과 밤을 환히 밝히는 달.

44) 세우(細雨) : 가랑비.

45) 독숙공방(獨宿空房) : 독수 공방(獨守空房). 아내가 남편 없이 밤을 혼자 지내는 일.

46) 녹양방초(綠楊芳草) : 푸른 버들과 아름다운 풀.

47) 조로(朝露) : 조균(朝菌). 아침 이슬. 인생의 덧없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48) 표연(飄然) : 모든 것을 떨쳐 버려 매우 가볍다. 나부끼어 팔랑거리는 모양이 가볍다.

49) 머리채 : 길게 늘어뜨린 머리털.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